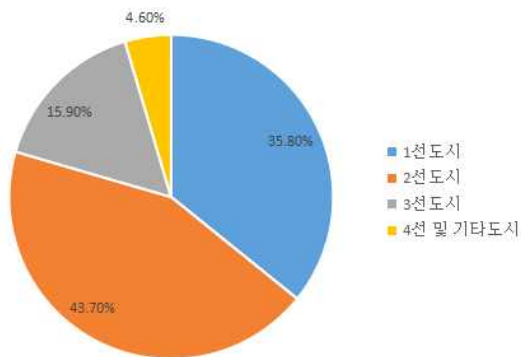


중국 자국산 유제품 신뢰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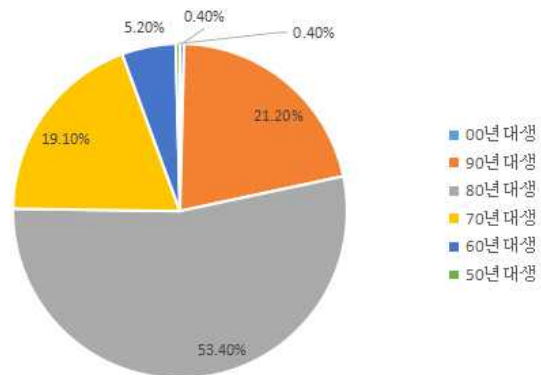
aT청두지사

올해 제3분기, 중국청년신문사 사회조사중심연합설문망은 2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조사결과 75.7%의 소비자가 중국산 유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설문조사대상 도시비례(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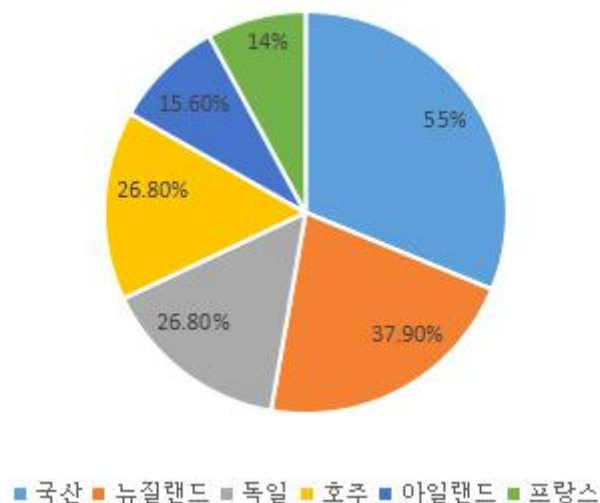


【설문조사대상 연령대비례(단위:%)】



설문조사에 참여한 소비자들 중에서 55%의 소비자들이 국산유제품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이어 뉴질랜드가 37.9%로 선호도 2위를 차지함.

【유제품 원산지 선호도 (단위:%)】



또 이중 40.3%가 국산 유제품을, 38.9%가 수입유제품을 즐겨 마시고 15.2%가 중립을 지켰으며 5.5%가 우유를 안 좋아한다고 밝힘.

국산 유제품 품질에 대해서는 50.1%의 소비자가 국산 유제품 품질은 나날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29.2%의 소비자들은 예전과 비슷하다고 생각, 13.5%가 국산 유제품 품질이 더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며 7.2%가 모르겠다고 밝힘. 종합결과 75.7%의 소비자들이 국산 유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영유아용 분유에 대하여 비교적 큰 개선을 하였는데 영유아용 조제분유 회사들은 영유아용 분유 제조를 위한 원유 생산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젖소는 반드시 직접 키워야 함. 현재 중국에서는 적지 않은 대기업들이 자기들만의 원유 공급원을 갖고 있으며 과거에 농가의 우유를 구매하여 가공 생산하는 것보다, 영유아용 분유의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음.

2016년 중국 출생률은 동기대비 8%나 증가하였으며 출생인구는 1790만 명에 달함. 현재 중국 유제품 소비수준은 1인당 평균 33Kg으로 세계평균수준의 1/3, 아시아의 1/2 수준임. 이와 반대로 한국은 출생률 저하의 영향으로 분유 생산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분유 등 유제품 생산액은 2014년의 3,915억 원에서 2015년의 3,358억원으로, 2016년에는 2653억 원으로 하락하였음. 신생아 관련 소비량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 : 수입식품온라인, 중국신문망, aT청뚜지사